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2003. 10

(사)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



2003. 10

(사)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

# ■ ■ ■ ■ ■ 목 차 ■ ■ ■ ■ ■

## I. 의암 주논개 대축제 개요

1. 축제 개요
2. 축제 목적
3. 축제 내용

## II. 서 론

1. 평가목적
2. 평가내용
3. 평가방법

## III. 본 론

1. 양적 평가(설문조사 결과분석)
2. 질적 평가(현장조사 결과분석)

## IV. 축 제 총 평

1. 서술적 총평
2. 축제 대안 제시

## V. 별 첨

-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지
- 축제 평가단 조직도

# 1. 의암 주논개 대축제 개요

## 1. 축 제 개 요

축 제 명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축제일시	2003년 9월 26일 ~28일
축제장소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주 최	장수군/(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KBS 전주방송총국
주 관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축제성격	논개 선양 및 지역화합을 위한 종합축제
참여인원	장수군민 및 외지 관광객 약 1만여명
축제예산	2억 2천 5백만원

## 2. 축 제 목 적

- 논개사의 재정립과 세계 속의 여인상 구현
- 군민의 날 행사와의 연계로 군민화합의 장 마련
- 대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축제
- 장수군 특산물과의 연계로 인한 홍보 강화
- 여성단체와의 연계 행사로 인한 총절의 여인상 구현

## 3. 축 제 내 용

### ● 6개 부문 25개 종목

- 공식행사(3): 논개 제례, 기념식, 폐막 종야제
- 공연행사(6): 전야제, 논개 총절무, 실버페스티벌, 농악놀이, 논개 선발대회  
군민화합 한마당
- 문화행사(7): 영화의 밤, 전야 퍼레이드, 불꽃놀이, 의암 백일장, 한시 백일장  
경노잔치, 사진 공모전(촬영대회)
- 체험행사(2): 전통체험 여섯마당, 풍물 야시장
- 체육행사(4):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남녀 궁도대회, 군수배 테니스 대회  
논개배 탁구대회
- 전시행사(3): 사과 특별기획전, 사진/시화/서에 전시회, 농특산물 전시판매

## II. 서 론

1. 평 가 목 적

2. 평 가 내 용

3. 평 가 방 법

## II. 서 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 새롭고 신기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여가의 선용이나 문화의 향유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축제들을 접하게 된다.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가 충족되고 나서 인간의 욕구가 물질적 가치를 뛰어 넘어 자기 존재의 성취감과 정신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오늘날은 과거의 발전 개념을 지양하고 인간 삶의 질적 향상과 서로간의 연대감 강화,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에너지 충전으로 '문화'라는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이 문화는 지역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었으며 구성원들만 향유하던 것이 이제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축제는 분명 가슴 설레는 상품이며 21세기 연기 없는 고 부가가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지역축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축제를 통해 자치단체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수군에서 행하고 있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행하여 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군민의 날과 때를 같이하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 본다. '논개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축제는 지난 2000년 사단법인 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가 창립되면서 지금의 축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축제명도 바뀌었으며(논개제전→논개 대축제→의암 주논개 대축제) 축제의 주관도 장수군에서 사)의암 주논개 정신선양회로 바뀌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군민들만을 위하던 동네잔치 수준에서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유형의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대의 명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평가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축제가 문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축제의 소비자가 되는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의 축제 소비행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제의 역할 등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축제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 자료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평 가 목 적

- 축제 소비자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축제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축제 기획/운영의 방향성 제시
-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세부평가를 통해 축제 서비스 및 축제의 질 상승 촉구
- 객관적이고 계량화 된 데이터 대입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문제점 지적과 추후행사에 대한 축제 대안 제시

## 2. 평 가 내 용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평가 내용은 기본적으로 축제가 행해진 2003년 9월 26일~9월 28일(3일간)까지이며 부가적으로 축제의 기획/ 추진과정, 그리고 추후 행사에 대한 대안 제시를 본 평가의 내용으로 함.

- 축제 개최 의의 및 명칭 평가 -목적 및 인지도 측정
- 컨셉 설정의 적정성 평가 -축제의 방향성 제시
- 행사장 시설 및 운영현황 평가 -축제 서비스 개선 제시
- 축제 홍보의 효율성 평가 -축제 홍보 활동의 효율성 제시
- 축제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 -프로그램의 질적 상승 제시
- 관람객 호응도 평가 -축제 참가 만족도 측정

## 3. 평 가 방 법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한 현장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평가, 관람객 면접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평가, 평가요원 전원의 집단적 토론평가를 병행 실시

-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양적 평가  
-축제 기간인 200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논개 대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 ◆ 관람객 면접 결과 분석을 통한 질적 평가  
-축제 기간인 200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 ◆ 집단적 토론 평가  
-축제 평가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1일 행사 종료 후 당일 행사 및 축제 전반에 걸친 토론 평가 실시



## III. 본 론

### ■ 양적 평가(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2. 응답자의 특성
3. 축제 분위기 및 홍보
4. 행사에 대한 부문별 평가
5. 행사 내용에 대한 평가
6.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기 타

#### 1.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축제 기간인 2003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논개 대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 3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는 277명이었으며, 각 문항별 무 응답자를 제외한 실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백분율을 구하였다.

각 문항별 빈도수 분석과 함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교차분석의 경우는 이 평가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령별 및 거주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43명(51.6%), 여자 134명(48.4%)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4%, 20대 18.1% 60대 이상 16.2%의 순이었다. <표 1>

직업별로는 학생이 1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어업 및 축산업(18.5%), 주부(13.1%), 자영업(13.1%), 사무·행정직(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보면, 장수군외 전북지역 거주자가 46.3%, 장수군내 거주자 43.8% 였으며, 전북 외 지역 거주자는 9.6%였다. 전북 외 지역 거주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거주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전남 광주 지역 거주자가 각각 2명씩이었으며,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전남 여수, 인천, 경남 창원, 경남 진주, 충남 거주자가 각각 1명씩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36.1%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27.7%),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19.3%)의 순이었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표본수	특 성
성 별	277명	남자(143명(51.6%), 여자 134명(48.4%))
연 령	277명	20대 미만 36명(13.0%), 20대 50명(18.1%) 30대 61명(22.0%), 40대 51명(18.4%) 50대 34명(12.3%), 60대 이상 45명(16.2%)
직 업	277명	농어업 및 축산업 51명(18.5%), 사무행정직 23명(8.4%) 공무원 17명(6.2%), 교사 6명(2.2%), 전문직 12명(4.4%) 생산직 근로자 5명(1.8%), 주부 36명(13.1%) 자영업 36명(13.1%), 서비스업 12명(4.4%) 학생 53명(19.3%), 무직 17명(6.2%), 기타 7명(2.5%) <무응답 2명>
거주지	277명	장수군내 119명(43.8%), 장수군 외 전북지역 127명(46.7%) 전북 외 지역 26명(9.6%) <무응답 5명>
학 력	277명	무학 7명(2.6%), 초등학교 졸업(재학) 31명(11.3%) 중학교 졸업(재학) 53명(19.3%), 고등학교 졸업(재학) 99명(36.1%) 대학교 졸업(재학) 76명(27.7%), 대학원 이상 8명(2.9%) <무응답 3명>

### 3. 축제 분위기 및 홍보

#### (1) 축제 분위기

축제 기간 동안 '장수군의 거리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1%**가 '다소 느낀다', 또 31.2%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해 70%이상의 사람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 분위기를 별로 못 느끼거나 전혀 못 느낀다는 응답은 9%에 불과 했다. <표 2>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축제분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50대 이상 91.0%), 장수군내 거주자들(67.8%) 보다는 장수군외 지역 거주자(71.2%)들이 다소 축제 분위기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축제 분위기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많이 느낌	86	31.2
다소 느낌	108	39.1
그저 그렇다	57	20.7
별로 못 느낌	20	7.2
전혀 못 느낌	5	1.8
계	276	100.0

#### (2) 축제 정보 습득

응답자들은 '축제 정보'를 주로 '현수막 및 포스터'(33.9%)와 '주위 사람'(31.0%)을 통해 얻고 있으며, 그 다음이 'TV'(12.4%)와 '각종 팜플렛 및 안내책자'를 통해 축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현수막 및 포스터'(41.0%)를 통해 주로 축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장수군 외 거주자들은 '주위사람'(38.16%)을 통해 축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축제 홍보

응답자들의 **42.2%**는 축제 홍보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잘 안된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6.2%에 불과해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홍보는 비교적 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통이다'는 응답도 41.5%에 달해, 축제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높을수록 축제 홍보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50대 이상 74.0%), 거주지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10.5%)보다는 장수군외 거주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비교적 높았다.(20.3%)

<표 3> 축제 정보 습득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신문	7	2.6
잡지	1	0.4
TV	34	12.4
라디오	1	0.4
팸플렛 및 안내책자	33	12.0
현수막 및 포스터	93	33.9
주위사람	85	31.0
인터넷	6	2.2
여행사 및 관광안내소	2	0.7
기타	12	4.4
계	274	100.0

<표 4> 축제 홍보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잘됨	45	16.5
잘 됨	70	25.7
보 통	113	41.5
잘 안 됨	37	13.6
매우 잘 안됨	7	2.6
계	272	100.0

#### (4) 축제 인지 여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전혀 몰랐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해 이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 축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지도가 약간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5> 축제인지 여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잘 알고 있었음	108	39.3
조금 알고 있었음	107	38.9
들어 본적 있음	36	13.1
전혀 몰랐음	24	8.7
계	275	100.0

<표 6> 연령별 축제인지도

<단위: 명, ( )는 %>

연령 \ 인지도	잘 알고 있었음	조금 알고 있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몰랐음	계
20대 이하	23 (26.74)	39 (45.35)	16 (18.60)	8 (9.30)	86 (31.27)
30~40대	45 (40.18)	46 (41.07)	13 (11.61)	8 (7.14)	112 (40.73)
50대 이상	40 (51.95)	22 (28.57)	7 (9.09)	8 (10.39)	77 (28.00)
계	108 (39.27)	107 (38.91)	36 (13.09)	24 (8.73)	275 (100.00)

### (5) 축제 참가 동기

응답자들은 '축제 참여 동기'에 대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25.5%),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23.4%),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18.6%),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3.5%)의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내용은 적어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주민의 여가 활동과 지역주민 화합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표 7>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4.9%), 다음으로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16.3%),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2.8%),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12.8%)의 순이었다. 30~40대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3.4%),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각각 19.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50대이상의 연령층은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축제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6.4%),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23.4%)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의 경우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31.6%), '지역화합을 위해'(24.8%) 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많아 장수군 주민들이 지역축제 및 지역화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장수군외 거주자의 경우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32.2%),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17.11%),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13.8%) 축제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면 보다 많은 장수군외 지역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보여진다.

### (6)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축제참가자들이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6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보'(22.5%), '버스'(13.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장수군내 거주자의 경우 '도보'(41.9%)와 '자가용'이용자(40.17%)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버스'이용자는 14.5%였다. 장수군외 거주자의 경우 '자가용'이용자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이용자는 11.8%로 나타났다.

<표 7> 축제 참가 동기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지역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64	23.4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37	13.5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51	18.6
다른 사람의 권유로	18	6.6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70	25.5
우연히 참가	24	8.8
기 타	10	3.6
계	274	100.0

<표 8>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버 스	36	13.1
택 시	2	0.7
자가용	167	60.7
도 보	62	22.5
기 타	8	2.9
계	275	100.0

## 4. 행사에 대한 부문별 평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점으로 처리했다. 행사관련 부분은 '접근성' '안내요원 및 시설' '편의시설'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단 '기타'부분의 '숙박시설' 관련 부분은 응답자가 215명으로 장수군외 지역의 행사참가자(159명) 보다 많아 빈도수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평균값만 제시하고자 한다.

### (1) 접근성

#### ① 행사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응답자의 27.5%가 행사장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고 응답했고, 40.3%가 '용이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2/3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접근 용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에 불과해, 축제 참가자가 행사장에 접근하는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이를 5점척도에 부과한 점수로 환산하면, '행사장까지의 접근용이성'은 평균 3.89점(5점만 점, 3점이 '보통'임)을 얻어 이 부문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수군내 거주자의 평균점수는 3.96점이었으며, 장수군외 거주자의 평균점수는 3.83점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사장까지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

<표 9> 행사장까지 접근 용이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75	27.5
그렇다	110	40.3
보통이다	74	27.1
그렇지 않다	11	4.0
매우 그렇지 않다	3	1.1
계	273	100.0

#### ②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

'행사장간의 이동'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23.8%가 '매우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34.2%는 '편리하다'고 함으로써 전체의 58.0%가 행사장사이를 오가는데 '편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을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3.71점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표13>, 장수군내 거주자들(3.86점)보다는 장수군외 거주자들(3.58점)이 상대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생소함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행사장간 이동 편리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64	23.8
그렇다	92	34.2
보통이다	86	32.0
그렇지 않다	24	8.9
매우 그렇지 않다	3	1.1
계	269	100.0

### ③ 도로 안내 시설의 구비성

"도로 안내 표시판 등이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7.1%의 응답자들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17.6%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비교적 이 시설들이 잘 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1>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3.48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는 상회하는 점수를 얻고 있다. 장수군내 거주자의 경우는 3.59점, 장수군외 거주자의 경우는 도로 안내 시설을 3.4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표 11> 도로 안내 시설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4	20.7
그렇다	69	26.4
보통이다	92	35.2
그렇지 않다	41	15.7
매우 그렇지 않다	5	1.9
계	261	100.0

### ④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응답자의 38.2%는 축제장소와 주변 관광지가 잘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24.9%의 응답자들은 주변 관광지와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이 항목의 평균점수는 3.23점이었는데,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3.35점 장수군외 거주자들은 3.14점을 주어 '보통'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문제는 장수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을 보다 많이 흡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자들이 장시간 머물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장수군이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표 13>

<표 12>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7	14.0
그렇다	64	24.2
보통이다	98	37.0
그렇지 않다	56	21.1
매우 그렇지 않다	10	3.8
계	265	100.0

<표 13> 접근성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행사장까지 접근 용이성	3.89	3.96	3.83
행사장간의 이동 편리성	3.71	3.86	3.58
도로 안내 시설의 구비성	3.48	3.59	3.40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3.23	3.35	3.15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2) 안내요원 및 시설

### ① 안내요원의 친절도

'안내요원의 친절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55.1%가 '친절하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친절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1.8%였다, 따라서 이번 축제의 안내요원들은 비교적 친절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표 14>

안내요원의 친절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내 거주자와 장수군외 거주자가 이에 대해 똑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표 14> 안내요원의 친절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6	21.3
그렇다	89	33.8
보통이다	87	33.1
그렇지 않다	27	10.3
매우 그렇지 않다	4	1.5
계	263	100.0

## ② 안내요원의 축제 숙지도

응답자들의 52.0%가 '안내요원들이 축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8.4%는 '보통이다', 9.7%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안내요원의 축제 숙지도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는 3.59점이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3.64점)이 장수군외 거주자들(3.55점)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표 15> 안내요원의 축제 숙지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0	19.4
그렇다	84	32.6
보통이다	99	38.4
그렇지 않다	18	7.0
매우 그렇지 않다	7	2.7
계	258	100.0

## ③ 안내요원 수의 충분성

'안내요원의 수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43.9%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20.5%를 차지하고 있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표 16>

안내요원의 수와 관련한 점수는 3.39점으로 평균(3.00점)을 웃도는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장수군내 거주자들(3.38점) 보다는 장수군외 거주자들(3.40점)이 이에 대해 약간의 점수를 더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표 16> 안내요원 수의 충분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5	20.8
그렇다	61	23.1
보통이다	94	35.6
그렇지 않다	39	14.8
매우 그렇지 않다	15	5.7
계	264	100.0

## ④ 안내시설의 충실도

안내시설의 충실도는 이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항목이다. '안내시설이 충실했다'는 응답이 41.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응답도 25.1%에 달했다. <표 17>

특히 장수군외 거주자들이 이 항목에 3.12점이라는 평균점수를 간신히 넘는 점수를 주었다

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장수군내 거주자는 3.42점) <표 19>

<표 17> 안내 시설의 충실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8	14.7
그렇다	68	26.3
보통이다	88	34.0
그렇지 않다	51	19.7
매우 그렇지 않다	14	5.4
계	259	100.0

⑤ 안내자료의 충실도

안내시설과 함께 이 부문에서 크게 평가받지 못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41.3%의 응답자들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23.1%의 응답자가 안내자료의 불충실함을 지적하고 있고<표 18>, 평균점수도 3.27로 평균점수를 갖 상회하고 있으며, 안내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수군외 거주자들(3.14점)이 장수군내 거주자들(3.44점) 보다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19>

<표 18> 안내 자료의 충실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8	14.4
그렇다	71	26.9
보통이다	94	35.6
그렇지 않다	46	17.4
매우 그렇지 않다	15	5.7
계	264	100.0

<표 19> 안내요원 및 시설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안내 요원의 친절성	3.63	3.63	3.63
안내 요원의 축제 숙지도	3.59	3.64	3.55
안내 요원수의 충분성	3.39	3.38	3.40
안내 시설의 충실도	3.25	3.42	3.12
안내 자료의 충실도	3.27	3.44	3.14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3) 편의 시설

#### ①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주차시설과 관련해 응답자의 **43.3%**가 '불편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이용시 편리했다는 응답은 29.9%에 불과 했다. <표 20>

이와 같은 결과는 행사장까지 접근이 용이하고, 또 행사장간의 이동이 편리하더라도 주차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함은 물론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축제 참가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공간의 확보는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 축제 참가자들이 매긴 점수는 2.82점으로 중간점수인 3.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외 거주자들의 점수는 2.67점으로 나타났다.<표 23>

<표 20>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0	11.2
그렇다	50	18.7
보통이다	72	26.9
그렇지 않다	74	27.6
매우 그렇지 않다	42	15.7
계	268	100.0

#### ② 휴식공간 만족도

휴식공간의 경우는 '잘되어 있다'(37.0%), '보통이다'(31.3%), '잘 되어있지 못하다'(31.7%) 등으로 응답해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휴식공간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3.11점이었으며, 장수군 거주자(3.18점)에 비해 장수군외 거주자들(3.04)이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

<표 21> 휴식공간 만족도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8	14.2
그렇다	61	22.8
보통이다	84	31.3
그렇지 않다	62	23.1
매우 그렇지 않다	23	8.6
계	268	100.0

### ③ 화장실의 정돈성

화장실의 경우는 휴식공간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 였다.<표 22>

화장실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장수군 거주자(3.30점)보다는 장수군 외 거주자들이 이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06점) 외지인 뿐만 아니라 장수군민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23>

<표 22> 화장실 정돈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6	13.5
그렇다	68	25.5
보통이다	93	34.8
그렇지 않다	44	16.5
매우 그렇지 않다	26	9.7
계	267	100.0

<표 23> 편의 시설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주차시설 이용의 편리성	2.82	3.03	2.67
휴식공간 만족도	3.11	3.18	3.04
화장실의 정돈성	3.16	3.30	3.06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4) 기 타

##### ①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축제기간 중 판매한 음/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9%가 '적정하지 않다', 23.7%가 '매우 적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과반수인 56.2%에 달하는 사람들이 음식료품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표 24>

음식료품 가격에 대한 축제 참가자들의 반응은 행사 일반에 관한 설문 중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2.45점이었으며, 특이한 점은 장수군외 거주자들의 반응(2.50)에 비해 장수군 거주자들의 반응(2.36점)이 보다 낮게 나온 점이다. <표 27>

<표 24>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8	3.0
그렇다	41	15.4
보통이다	77	28.9
그렇지 않다	77	28.9
매우 그렇지 않다	63	23.7
계	266	100.0

##### ②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토산품의 가격도 34.1%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정하다'(24.4%)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고, 41.5%는 '보통이다'는 반응을 보였다<표 25>

이 항목에 대한 평균점은 2.88로 응답자들이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수군 거주자들의 점수는 2.92점, 장수군외 거주자들의 반응은 2.83점이었다.<표 27>

<표 25>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14	5.4
그렇다	49	19.0
보통이다	107	41.5
그렇지 않다	67	26.0
매우 그렇지 않다	21	8.1
계	258	100.0

##### ③ 먹거리의 다양성

축제기간 중 마련된 먹거리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43.8%가 먹거리가 다양하다는데 동의한 반면, 24.2%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2.1%였다. <표 26>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점수는 3.34점이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은 3.43점, 장수군외 거주자들은 3.27점으로 평가했다.<표 27>

<표 26> 먹거리의 다양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3	20.0
그렇다	63	23.8
보통이다	85	32.1
그렇지 않다	50	18.9
매우 그렇지 않다	14	5.3
계	265	100.0

#### ④ 숙박시설의 청결성 및 예약의 편리성

이에 관한 응답자가 각각 215명으로 장수군외 지역 참가자보다 많이 나타났고, 장수군외 지역 참여자의 경우도 숙박을 안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빈도분석을 제외하고 참고로 평균 점수만 제시하면, '숙박시설의 청결성'은 2.99점이었으며 장수군외 거주자의 평가점수는 2.98점이었다.

또한 '숙박시설 예약의 편리성'에 대한 점수는 2.94점이었으며, 장수군 내외 거주자 모두 2.94점으로 평가했다. <표 27>

<표 27> 기 타

구 분	전 체	장수군 內 거주자	장수군 外 거주자
음/식료품 가격의 적정성	2.45	2.36	2.50
토산품 가격의 적정성	2.88	2.92	2.83
먹거리의 다양성	3.34	3.43	3.27
숙박시설의 청결성	2.99	2.99	2.98
숙박시설 예약의 편리성	2.94	2.94	2.94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5. 행사내용에 대한 평가

### (1) 행사 내용 평가

#### ① 행사 내용의 다양성

'행사 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6%가 '매우 그렇다' 27.0%가 '그렇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과반수인 53.6%가 '다양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5.9%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고 있다. <표 28>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연령층(3.29점)과 30~40대의 연령층(3.26점)보다 50대 이상의 연령층(4.41점)에서 행사 내용이 다양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이 젊은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와 장수군외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각각 3.58점과 3.60점으로 나타나 행사의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8> 행사 내용의 다양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70	26.6
그렇다	71	27.0
보통이다	80	30.4
그렇지 않다	29	11.0
매우 그렇지 않다	13	4.9
계	263	100.0

#### ② 행사 내용의 재미성

응답자의 26.6%가 '매우 재미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47.1%가 행사 내용이 '재미있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재미가 없었다'는 응답자는 15.2%였다, 따라서 행사 내용은 대체로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표 29>

이 항목은 위의 '행사의 다양성'보다 연령층간에 느끼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2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재미성'에 대한 평가가 3.19점, 30~40대 연령층은 3.21점인데 반해 50대 이상 연령층은 4.51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행사 내용에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훨씬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 3.62점, 장수군외 거주자 3.50점으로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행사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행사 내용의 재미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70	26.6
그렇다	54	20.5
보통이다	99	37.6
그렇지 않다	32	12.2
매우 그렇지 않다	8	3.0
계	263	100.0

### ③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반수에 가까운 **49.9%의 응답자들이 '충실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충실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3.8%였다. 따라서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의 내용들이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이 항목에 대한 평가도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내용의 충실성을 3.24점으로 평가했고, 30~40대 연령층은 3.27점, 그리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4.43점으로 평가해 **연령층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표 33>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67점)이 장수군외 거주자들(3.51점) 보다 행사의 내용이 충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행사 내용의 충실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62	23.8
그렇다	68	26.1
보통이다	95	36.4
그렇지 않다	29	11.1
매우 그렇지 않다	7	2.7
계	261	100.0

### ④ 행사 내용의 이해 용이성

행사내용에 대해 **55.7%의 응답자들이 '행사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반면, 11.8%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31>

연령별로는 이 항목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4.41점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상대적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이하 3.38점, 30~40대 3.41점) <표 33>

지역별로는 장수군외 거주자들(3.59점)에 비해 장수군내 거주자들(3.78점)이 행사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행사 내용의 이해 용이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64	24.4
그렇다	82	31.3
보통이다	85	32.4
그렇지 않다	27	10.3
매우 그렇지 않다	4	1.5
계	262	100.0

⑤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행사 내용에 관한 문항 중 가장 평가를 낮게 받은 항목인데(전체 평균 3.24),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5%였으며, '많지 않았다'는 응답은 23.1%를 차지했다. <표 32>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3.00점으로 평가해 '보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30~40대 연령층도 3.08점을 주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3.77점으로 비교적 일반인 참여 행사가 많았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32점)이 장수군외 거주자들(3.17점)보다 상대적으로 행사참여의 기회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32>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6	13.9
그렇다	61	23.6
보통이다	102	39.4
그렇지 않다	48	18.5
매우 그렇지 않다	12	4.6
계	259	100.0

<표 33> 행사 내용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행사 내용의 다양성	3.59	3.29	3.26	4.41	3.58	3.60
행사 내용의 재미성	3.56	3.19	3.21	4.51	3.62	3.50
행사 내용의 충실성	3.57	3.24	3.27	4.43	3.67	3.51
행사 내용의 이해 용이성	3.67	3.38	3.41	4.41	3.78	3.59
일반인 참여 행사의 풍부성	3.24	3.00	3.08	3.77	3.32	3.17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2) 참가자의 행사(프로그램) 평가

응답자들에게 이번 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행사들을 제시하고 이 행사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와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 그리고 '가장 유익했던 행사'를 3가지씩 선정하도록 했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행사는 25개였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621건,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450건, '가장 유익했던 행사'에 응답한 건수는 539건이었다.

### ①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

응답자들이 선정한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불꽃놀이' '전야제' '영화의 밤' '주논개 선발대회' '농악놀이' '풍물 야시장' '군민 화합 한마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불꽃놀이' '영화의 밤' '전야제' 순으로, 30~40대의 연령층은 '영화의 밤' '불꽃놀이' '전야제'의 순으로 재미있었던 행사를 선정했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불꽃놀이' '전야제' '농악놀이'의 순으로 선정했다.

### ②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

축제 중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암 백일장' '남녀 궁도 대회' '논개배 탁구 대회'를 가장 많이 꼽았고(각각 38명 응답), 그 다음으로는 '군수배 테니스 대회'(37명) '한시 백일장' (35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34>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의암 백일장'과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전야 길 퍼레이드' '남녀 궁도 대회' '군수배 테니스 대회'의 순으로, 30~40대의 연령층은 '군수배 테니스 대회'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주논개 선발대회' '주논개 총절무' '의암백일장' '남녀 궁도대회' 등을 재미없었던 행사로 인식했다. 또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영화의 밤' '남녀 궁도 대회' '의암 백일장' '논개골 실버페스티벌' '전야 길 퍼레이드'의 순으로 재미없었던 행사를 꼽았다.

### ③ 가장 유익했던 행사

응답자들은 '불꽃놀이' '전야제' '주논개 선발대회' '영화의 밤' '군민 화합 한마당' '농악놀이' '전통 체험 여섯마당' 등의 순으로 유익했던 행사를 선정했다. <표 34>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영화의 밤' '군민 화합 한마당' '전통체험 여섯마당' '의암 백일장' '한시 백일장' '논개 총절무'의 순으로 유익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0~40대의 연령층은 '영화의 밤' '주논개 선발대회' '전통체험 여섯마당' '전야제' '논개 총절무' '불꽃놀이'의 순으로 유익한 행사를 선정했다. 또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불꽃놀이' '전야제' '농악놀이' '전통체험 여섯마당' '장수사과 특별기획전'의 순으로 유익한 행사를 선정했다.

<표 34> 참가자의 행사(프로그램) 평가

순번	행 사 명	재미있었던 행사	재미없었던 행사	유익했던 행사
1	영화의 밤	73	12	35
2	전야 길 퍼레이드	19	12	23
3	불꽃놀이	133	5	54
4	전 야 제	104	6	52
5	의암 주논개 제례	11	13	14
6	개 막 식	11	12	8
7	논개 총절무	13	15	22
8	논개골 실버 페스티벌	9	10	13
9	농악놀이	32	20	32
10	주논개 선발대회	58	11	36
11	군미화합 한마당	21	14	33
12	폐막 종야제(달집태우기)	9	3	16
13	전통체험 여섯마당	17	5	30
14	사과특별기획전	16	16	17
15	의암 백일장	3	38	14
16	한시 백일장	4	35	18
17	경노잔치(의암사)	18	17	18
18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	16	0
19	남녀 궁도대회	3	38	6
20	군수배 테니스 대회	2	37	2
21	논개배 탁구대회	1	38	1
22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	2	9	14
23	풍물 야시장	22	25	15
24	사진/시화/서에 전시회	6	16	22
25	농특산물 전시판매	9	14	15
계		621	450	539

### (3) 행사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점으로 처리했다. 이 만족도 조사는 '공연행사' '문화행사' '체험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 '개·폐막식'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 ① 공연행사

공연행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해 참가자들이 공연행사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4.7%) <표 35>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계산한 점수에 의하면, 공연행사에 대한 전체의 평균 점수는 3.73점으로 6개 부문 행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40대의 연령층이 각각 3.56점과 3.59점을 주어 비슷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4.11점으로 평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75점)이 장수군외 거주자들(3.69점)보다 약간 더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35> 공연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50	20.4
그렇다	97	39.6
보통이다	85	34.7
그렇지 않다	9	3.7
매우 그렇지 않다	2	0.8
행사 불참	2	0.8
계	245	100.0

#### ② 문화행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8.2%의 응답자들이 '불만족'을 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연행사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들은 문화행사에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6>

문화행사에 대한 평균점수는 3.54점이었으며, 이 행사와 관련해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35점, 30~40대 3.44점, 50대 이상 3.90점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47점)이 장수군외 거주자들(3.58점)보다 약간 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36> 문화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43	17.6
그렇다	91	37.3
보통이다	83	34.0
그렇지 않다	16	6.6
매우 그렇지 않다	4	1.6
행사 불참	7	2.9
계	244	100.0

### ③ 체험행사

체험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33.3%였으며, '보통'이다 49.8%,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 행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6개 부문 중 체육행사와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7>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3.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20대 이하의 연령층과 30~40대의 연령층은 각각 3.08점과 3.02점을 주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41>

지역별로는 장수군외 거주자(3.16점)들이 장수군내 거주자들(3.15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37> 체험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1	8.6
그렇다	60	24.7
보통이다	121	49.8
그렇지 않다	27	11.1
매우 그렇지 않다	6	2.5
행사 불참	8	3.3
계	243	100.0

### ④ 체육행사

체육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33.7%였으며, 14.4%의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표 38>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의 행사와는 달리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3.07점을 주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표 41>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장수군외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38> 체육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1	8.6
그렇다	61	25.1
보통이다	117	48.1
그렇지 않다	30	12.3
매우 그렇지 않다	5	2.1
행사 불참	9	3.7
계	243	100.0

⑤ 전시행사

전시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3.7%였으며,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8.1%,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14.4%였다. <표39>

전시행사에 대해서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50대 이상연령층은 3.68점, 30~40대 연령층은 3.20점,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3.15점으로 행사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표 41>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3.37점)이 장수군내 거주자들(3.29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39> 전시행사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26	8.6
그렇다	83	25.1
보통이다	93	48.1
그렇지 않다	26	12.3
매우 그렇지 않다	4	2.1
행사 불참	8	3.7
계	240	100.0

⑥ 개·폐막식

이 행사에 대해 45.6%의 응답자들이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6개 부문의 행사 중 3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7.0%였다. <표 40>

개·폐회식의 경우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장수군외 거주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41>



<표 40> 개·폐막식 평가

구 분	빈도수(명)	비 율(%)
매우 그렇다	38	16.5
그렇다	67	29.1
보통이다	100	43.5
그렇지 않다	11	4.8
매우 그렇지 않다	5	2.2
행사 불참	9	3.9
계	230	100.0

<표 41> 연령별·지역별 행사 만족도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공연 행사	3.73	3.56	3.59	4.11	3.75	3.69
문화 행사	3.54	3.35	3.44	3.90	3.47	3.58
체험 행사	3.16	3.08	3.02	3.43	3.15	3.16
체육 행사	3.14	3.25	3.12	3.07	3.25	3.05
전시 행사	3.32	3.15	3.20	3.68	3.37	3.29
개·폐막식	3.41	3.33	3.40	3.51	3.49	3.35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⑦ 응답자들이 평가한 점수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올해 거행된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평균 76.38점으로 올해의 축제를 평가했다.<표 42>

258명의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분포를 보면 1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80점을 준 응답자들이 전체의 19.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70점(17.1%), 90점(9.3%), 95점(8.5%), 60점(8.9%), 50점(8.1%)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가점수를 연령별로 보면, 30대~40대 연령층이 71.71점을 주어 가장 낮게 평가를 했고,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73.70점을 주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85.95점을 주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

지역별로 보면, 장수군외 거주자들(75.44)보다 장수군내 거주자들의 평가점수(77.56)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2> 참가자가 평가한 축제 점수

<단위: 점(100점 만점)>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 내 거주자	장수군 외 거주자
평가점수	76.38	73.70	71.71	85.95	77.56	75.44

## 6.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본 축제가 '장수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가장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및 표 44>

그 다음으로는 '애향심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는 순으로 본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축제가 '주민의 여가 활동에 기여'하거나 '자녀 교육에 기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장수군외 거주자들보다는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에서는 '주민 여가 활동에 기여' 한다는 항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논개 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1.8	43.9	18.9	4.5	0.8	100.0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36.0	38.6	21.2	3.4	0.8	100.0
애향심 제고에 기여	34.6	42.3	19.6	2.7	0.8	100.0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기여	28.9	42.6	20.5	7.6	0.4	100.0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	<b>43.7</b>	36.1	17.9	1.9	0.4	100.0
지역문화 정체성확보에 기여	30.9	41.1	23.8	3.8	0.4	100.0
주민 여가 활동에 기여	28.2	38.5	25.2	6.9	1.1	100.0
자녀 교육에 기여	<b>23.8</b>	35.2	32.2	6.1	2.7	100.0

<표 44> 논개 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연령별·거주지별)

구 분	전체	20대 이하	30~40	50대 이상	장수군내 거주자	장수군외 거주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02	4.01	3.92	4.15	4.03	3.99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4.06	3.81	4.10	4.27	4.07	4.04
애향심 제고에 기여	4.07	3.81	4.13	4.30	4.12	4.04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기여	3.92	3.76	3.90	4.14	3.91	3.91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	<b>4.21</b>	4.17	4.15	4.33	4.27	4.16
지역문화 정체성확보에 기여	3.98	3.95	3.90	4.14	4.01	3.97
주민 여가 활동에 기여	3.86	4.12	3.78	3.68	3.98	3.75
자녀 교육에 기여	<b>3.71</b>	3.68	3.73	3.73	3.73	3.69

<매우 그렇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 1점>

## 7. 기 타

① 응답자들이 축제기간 동안 사용한 경비를 보면, '1~3만원'이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6만원(28.9%), '1만원 미만'(14.1%), '7~9만원(8.9%), 10~12만원(7.8%)의 순이었다.

② '다음에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보러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7.4%의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30.5%의 응답자들은 '매우 있다'는 답을 했다. '별로 또는 전혀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4%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는 9.1%가 '다시 보러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은 '다시 보러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0%로 나타나('다시 보러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0.8%임) 이 축제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의 연령층은 2.4%가 '다시 보러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장수군외 거주자의 경우 6.0%가 장수군내 거주자는 1.7%가 본 축제에 대해 '다시 보러올 의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③ 이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30.3%가 '홍보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질'(15.7%), '편의시설 문제'(14.6%), '교통문제'(13.5%), '안내요원 및 시설'(10.5%)의 순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응답자들이 꼽은 '보완되어야 할 사업'은 '연계관광 코스 개발'(42.8%), '주민 참여 행사 개발'(36.4%), '지역특산물 판매'(15.9%)의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댄스 경연 대회, 지역주민이 주체되어 있는 행사, 질높은 공연행사, 전통문화행사, 화장실 청결과 다량보유' 등이었다.

⑤ 응답자들의 33.3%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5회 이상 참가했으며, '1~2회 참가'한 사람은 27.1%, '처음 참가'한 사람은 25.3%, '3~4회 참가'한 사람은 14.3%였다.

장수군외 거주자의 경우 '처음 참가'한 사람이 39.1%로 가장 많았고, '1~2회 참가' 32.5%, '3~4회 참가' 15.2%였으며, '5회 이상 참가자'도 13.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5회 이상 참가자'(33.7%)와 '처음 참가자'(32.%)의 비율이 높았으며, 30~40대는 '1~2회 참가자'와 '5회 이상 참가자'의 비율이 높았다(각각 30.6%). 50대 이상은 5회 이상 참가자가 36.8%로 가장 많았고, '1~2회 참가자'(29.0%), '처음 참가자'(22.4%), '3~4회 참가자'(11.8%)의 순이었다.

⑥ 축제 참가자들의 축제 참여 방법은 대체로 '골라서 참여'(61.2%)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 참여'하는 비율은 23.4%였다. 또 '거의 참여 않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수군내 거주자들이 장수군외 거주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본 론

### ■ 질적 평가(현장조사 결과분석)

1. 축제 기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2. 축제 예산에 대한 평가
3. 축제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4. 축제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5. 축제의 지역문화 /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 1. 축제 기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1) 축제의 취지, 목적, 컨셉, 지역특성 및 규모에 대한 적절성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적장을 꺼안고 구국의 일념으로 남강에 투신하신 논개님의 우국충절을 선양하고 3만 장수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논개님의 탄신일(음력 9월 3일)을 전후하여 행해지는 장수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이다.

그 사원이 언제부터인지 또 어떤 형태로 행하여졌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논개 정신 선양회의 설립(2000년)과 함께 전국적인 논개정신 선양의 필요성과 지역화합의 문화 창구로서의 역할 기대로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탄신429주년(2003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불멸의 민족 혼 아! 그리운 논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개정신 선양이라는 목적아래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 소외지역인 장수군에 다양한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된 종합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제가 행해지는 동안 논개정신 선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논개제례와 논개 충절무뿐이었고 나머지 행사는 여타 다른 축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장수군만이 가지고 있는 논개 대축제의 고유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2억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행한 행사치고는 그 규모나 짜임새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관광객 또는 행사 방문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다만 논개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전국 규모의 경주마 목장 유치 등 중 장기적인 장수군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논개 대축제 역시 전국 규모의 독창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 (2) 축제 기획의 전문성과 완결성에 대한 평가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설립 이후 논개 정신 선양 및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기획/운영/실행을 담당하는 상근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상근 조직이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선양회 이사들로 구성된 축제 기획위원회 역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로서 기획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템 개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벤트 업체나 사회단체, 공무원 조직에 아이템 창출을 의뢰하는 실정이며 그 아이템이 지역 현실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의 검증 없이 행사를 치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의 고유 업무인 논개 정신 선양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

램 창출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 전통문화나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기대하기는 당초에 어려우며 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분히 나열식 행사로 소모하면서 문화적/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차후 행사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고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역민이 만들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고유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나마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상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3) 축제의 독창성과 참신성에 대한 평가**

지역축제의 성패여부는 사실 주제의 참신성과 기획의 독창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제의 참신성이라 함은 축제가 가지는 성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성공한 몇몇 지역축제의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성공한 축제가 있는 반면 기획이 독창적이어서 성공한 축제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한라산 눈꽃 축제, 진도 영등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무주 반딧불 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장수군의 경우 일단 주제의 참신성 면에서는 다른 축제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논개라는 인물의 역사성이 전국적이기는 하나 그 지명도가 다소 약하고 거사 장소가 진주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주 논개'로 인식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의 독창성 면에서도 주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보 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으며 다른 행사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 대회, ○○ 노래자랑, ○○ 체험 등 축제 주제와 무관한 행사들이 논개 대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행사의 기획은 주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분석, 그리고 전문 기획인력이 결합되어 참신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다듬어져야만 비로소 타지역과의 경쟁력 있는 축제 기획을 기대할 수 있다.

금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국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가 담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축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문화 생성물이기에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 깊은 프로그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체육행사, 전시/체험행사, 부대행사로 크게 6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논개정신 선양과 연관된 행사는 공식행사의 논개제례와 공연행사의 논개 총절무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두 프로

그램을 제외하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라는 축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주제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축제와 전혀 차별성이 없었다.

더욱이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논개 선발대회의 경우 아무리 군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며 논개 정신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행사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2. 축제 예산에 대한 평가

### (1)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치러졌다. 세세한 예산안이 확보되었다면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나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아 이 부분은 현장 평가와 총회 승인안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예산이 2억 2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놀랐다. 지역축제에서 2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실로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런데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에 맞지 않는 스케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유는 메인 프로그램이라는 전야제, 논개 선발대회, 무대 및 하드웨어 설치에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배정하였고 그 나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단체나 동호회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축제 구성에 짜임새가 없어 보였다. 비단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단체나 동호회의 경우 행사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사회단체나 동호회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예산 부분만을 논개 대축제에서 지원 받아야 하고 그 나머지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예를 들자면 축제에 필요한 텐트나 시설물,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 그것이 단체나 동호회 설립 취지와도 맞다. 자신들의 식비나 기름 값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는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동호회가 구색 맞추기가 아닌 자발적인 축제 참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겠고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축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 3. 축제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 (1)지역 주민들의 참여정도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준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역축제가 지역 내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기 위해서는 주최 측이 지역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개방된 축제 기획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축제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오히려 축제와 괴리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본다.

#### (2)조직 구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민간이양 이후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그나마 성실히 민간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다. 전체 선양위원의 총회운영과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그리고 결정과정의 합리성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근 조직인 사무국 역시 논개 정신 선양과 의암 주논개 대축제 진행을 잘 하고는 있으나 인력면에서 볼 때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이 큰 행사를 치러내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자연스럽게 일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장수군의 간섭 아닌 간섭도 받아야 한다. 어차피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축제가 개최되기 3개월 전부터는 공무원 조직에서 인원을 지원 받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련 인사를 영입하여 함께 축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3)축제 홍보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축제령이 상당히 오래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 높지 않은 인지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빼어난 자연경관, 연계 관광지가 없다는 약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축제 홍보가 장수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장수군에만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광고탑, 애드벌룬은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전라북도권(전주권), 대전/충남권 정도는 축제 홍보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체개발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적인 논개정신 선양 사업전개와 전국적인 축제규모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축제 홈페이지 하나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축제 홍보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모든 지역축제가 선호하는 홍보 방식이다. 지역축제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일간지나 중앙의 TV 방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행하고 싶은 홍보 수법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축제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현실적으로 성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의 일간지나 TV방송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고 그것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역축제들은 연구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KBS 전국 노래자랑이 섭외 되어 홍보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살 만 하다.

#### (4) 행사장 배치의 완성도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행사장 구성은 의암공원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주차장 부지, 의암호와 논개 사당으로 펼쳐져 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나 외지 관람객의 경우 시설 요건에 상당한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이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행사장의 집약화와 연계성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모든 지역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외부 잡상인이 난무하여 메인 행사장 주변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주차장에 조성된 전통체험장과 사과 전시관이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옛장수 공연으로 행사 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 메인 행사장과 논개 사당을 이어 주는 산책로 역시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없어 축제 관람객을 논개 사당으로 유인하지 못했으며 의암호에 설치한 논개 바보트는 그저 디스플레이에 지나지 않았다. 전통 체험장 역시 전통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저 간이 시설인 마큐텐트로 그 공간을 유지하여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를 비롯한 하드웨어 구성은 타 지역축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 (5) 기타 시설 및 관람객 서비스에 관한 평가

지역축제에서 관람객에 대한 배려는 주최측이 관람객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었다. 관람객은 좀더 편안한 여건에서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기 원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기 원한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불편은 주차문제이다. 주차를 맡은 해당 부서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압적인 자세에 불친절한 안내는 관람객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협소한 주차공간은 차라리 읍내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었다.

다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화장실의 부족이다. 연인원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감에도 화장실은 주차장 화장실과 의암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두 곳뿐이고 그마저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좁고 물 상태가 좋지 못했다. 다만 상시 청소인원 배치와 화장지, 비누 등의 배치는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희석시키는 배려가 되었다.

또 한가지 불편이 행사장내에 설치된 음수대의 문제이다. 지하수를 이용한 음수대로 수질검사

까지 마친 것은 좋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부스에 물을 끌어가기 위해 호스를 꽂아 실제로 관람객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음수를 제공하는 부스나 혹은 종합안내소 정도에 음수를 준비하는 방안은 명년 행사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방문한 관람객의 70% 이상은 장수군민이다.(조사상으로는 50%정도로 조사되었지만) 나머지 30% 정도가 외지 관람객인데 이들의 한결같은 불편 중 하나가 휴식공간의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그늘이 없어 도시락 하나 먹기에도 불편하였고 마땅히 앉아서 쉴 공간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암공원에서 논개 사당까지의 산책로 주변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메인무대 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논개 사당에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산책로 주변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인데 의암 주논개 대축제 먹거리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듯 하다. 외부 잡상인들이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음면에서 운영한 먹거리 부스의 경우 특이할 만한 메뉴도 없었으며 가격 또한 타 지역축제와 비교해볼 때 비싼 편이었다. 결국 축제 관람객의 대부분인 군민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군민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역할 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급수 시설은 원만하게 이루어진 반면 하수 시설은 엉망이어서 하수를 그대로 바닥에 뿌리거나 의암호에 흘려보내는 반 환경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다음 행사에는 급수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을 찾는 대부분이 장수군민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사장이 읍내에 있어서 찾아오는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았지만 자주 운영되지 않았고 장수읍민을 제외한 다른 면에 거주하는 군민은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야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4. 축제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1)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참여도, 만족도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람자들의 호응은 축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단순히 대규모 이벤트인 전야제나 논개 선발대회, 군민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관람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관람객 대부분이 장수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군민들이 논개정신 선양이나 고급 문화의 향유를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축제를 '일탈' 혹은 '재미'의 기회로만 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관람객의 경우는 논개정신 선양이나 장수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체험을 기대하는 반면 군민은 지친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해방구로서 축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주요 타겟이 군민, 그리고 외부 관광객임을 감안한다면 축제에 논개정신 선양이나 문화체험, 문화향수 등을 제공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2) 축제 진행/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축제의 진행 및 운영에는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의자의 설치나 깔판 제공, 축제 출연자들을 위한 대기실 구성이나 안내 방송 등을 실시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종합 안내소에 비치된 안내 리후렛만으로 축제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종합 안내소에 대형 행사 일정표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 또한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사람을 찾는 문제, 차량 이동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운영하는 종합안내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방송시설은 보이지 않았고 그 역할을 무대에서 담당하다 보니 음향의 확성이 한계가 있어 실제로 주차장이나 다른 행사장에서는 안내 방송이 유명 무실하였다. 무대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운영 미숙을 보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차량 문제였다. 축제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차량은 다 주차되어 있었고 다시 그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대 관람객이나 부스 운영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다음 행사 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음향은 무슨 문제인지 소리가 너무 적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조명은 무대에 비해 너무 적은 용량을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전체 행사를 조율하고 장악하는 연출자의 부재와 총괄 시나리오가 없어 장비업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행사를 담당하는 이벤트 회사나 부서가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람자들의 통제부분이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 흥에 못 이겨 무대에 올라오는 취객이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무슨 놀이동산에 놀러온냥 무대 밑에서 뒹굴고 떠들며 행사 전체의 흐름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이 역시 진행인력의 부재가 낳은 결과인데 축제는 관람자들을 위한 일탈의 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소수를 위해 다수가 참아내는 인내의 장은 아닌 것

이다. 다음 행사에는 반드시 무대 연출을 도와주는 진행요원의 배치와 행사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총 연출자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부문별 전체평가)

#### ● 공 식 행 사

전야제는 매년 같은류의 기획을 가지고 행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연다는 취지라면 대규모 공연 유치나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장수군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키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개 제례는 논개 정신 선양이라는 취지에도 맞고 1년에 한번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논개님에 대해 제를 올린다는 의미도 커 논개 대축제 고유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다만 좀더 많은 인원이 제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기념식은 일종의 개막식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많은 축사 인원과 자신들의 공적을 선전하는 자리로 전락된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기왕에 군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전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전 선포식 같은 것을 연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 ● 공 연 / 문 화 행 사

KBS전국 노래자랑은 그 명성답게 많은 인원을 행사장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논개 총절무는 장수군민이 만들어 논개 정신 선양을 위해 시도한다는 점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논개골 실버페스티벌은 장수군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암주논개 대축제의 주요 관람객이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좋았으나 마치 각 읍면별 노인 노래자랑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독특한 장구나 특이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군민 만족감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설문조사 결과 영화의 밤은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 가장 유익한 행사 3위안에 선정되었다. 아마도 영화관이 없는 장수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스크린을 좀더 높게 설치하고 적정 수준의 음향시설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상투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노래자랑은 많은 관람객을 유인하였으며 진행에도 별 무리가 없어 보였다. 다만 행사의 진행을 장수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달집태우기 및 폐막 종야제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더불어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하자면 달집을 한쪽 구석에 설치했다가 옮기는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구조물로서 이용하고 달집을 태우는 의미와 강강수월래의 유래, 의미에 대해서 사회자의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종야제의 의미에 맞게 막걸리나 간단한 음료를 관람객과 함께 나누는 식의 화합행사를 연출해 보는 것도 좋겠다.

## ● 체육 / 경연행사

지역축제가 가지는 한계가 바로 경연행사이다. 전국적인 경연을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발상이 실제로 지역축제를 위축 들게 한다. 경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출연자이지 관람객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돈을 지역에서 쓰지도 않고 축제의 질을 높여 주지도 않는다. 논개 선발대회와 경우도 이와 비슷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는 1천만원 가량의 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한시백일장, 의암 백일장, 사진촬영대회 역시 상금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지출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 중 경연이 없는 축제는 없다. 오히려 경연이 주제가 된 축제도 많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 많은 상금을 걸고 홍보로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올바른 경연을 위해서는 경연의 상격을 격상시켜 참가자 스스로가 돈을 부담하여 경연에 참가하도록 유인해야 하고 문화예술 등용문처럼 품격을 격상시킨 경연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를 진행하며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왜 의암 주논개 대축제 프로그램에 게이트볼 대회, 궁도대회, 테니스 대회, 탁구대회가 들어있나 하는 부분이었다. 주최측에서 예산을 보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연관성 없는 체육행사가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평가단으로서의 의문이 앞섰다.

## ● 전시 / 체험행사

의암 주논개 대축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대 공연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관람객은 전시관람과 체험을 하며 보내게 되는데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 이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전시의 경우 사과 특별기획전이 전부였고(우표 및 농특산물, 향토음식 등은 별도) 체험행사는 전통 체험 여섯마당이 전부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통 체험인데도 부스는 전혀 전통을 고려하지 못한 천막이었고 옛장수 소음으로 대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 체험을 안내하기도 힘들었다.

축제 대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명년행사에서는 전통체험 부스나 사과 특별기획전 부스의 이동과 운영방안 개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 특별기획전은 예쁜 접시 꾸미기나 기네스 대회에서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된 듯 하다.

사진/시화/서예 전시는 문인협회등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논개 사당에서 실시하였는데 접근성 부족으로 많은 관람객이 호응하지는 못했다.

## ● 부대 행사

특히 부대행사라고 지칭할 만한 행사는 없었으나 풍물 야시장의 경우는 전혀 풍물이 없었고 그저 난전(또는 난장)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듯 싶다. 농특산물 전시판매나 향토음식 전시판매는 형태를 달리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 장터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경노잔치는 논개골 실버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그 취지가 맞을 것 같다.

## 5. 축제의 지역문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

### (1) 지역문화 정체성 및 발전에 대한 기여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지역 문화 정체성 및 군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이는 장수군에 별다른 공연이나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정이나 기간도 상당부분 군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하늘에 제를 올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축제 기원설에 의존해보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군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축제가 지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봤을 때 장수군의 문화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진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장수를 대표할 만한 문화행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중심이 되어 장수군을 대표할 만한 문화행사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명에 맞게 논개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 요컨대 논개의 출생, 성장, 거사를 체험 해 본다거나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장수군만이 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 (2)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축제의 문화적/ 교육적 가치 증진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 함은 축제를 통한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유형의 경제적 가치로 재생산함을 의미하고 축제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외부관광객 유치로 통한 외부 자본의 유입을 뜻한다. 이는 축제를 개최하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일이고 실제로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관람객 대부분이 장수군민이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고 외부 관광객에 의한 자본의 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대부분의 지출은 식/음료 부분에서 행해졌고 장수군 특산품이나 캐릭터 상품, 숙박, 체험부문 지출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수군 특산품인 사과판매 역시 팔려는 의지가 부족한 듯 보였고 논개 관련 캐릭터 상품을 비롯하여 축제 기념품, 기타 다른 장수군 특산품 판매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축제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루어지는데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한다면 이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축제 개최 의미도 퇴색된다. 주제의 독창성과 프로그램의 참신성, 그리고 편안한 관람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유인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행 과제로 여겨진다.

## IV. 축 제 총 평

1. 서술적 총평

2. 축제 대안 제시



## IV. 축제 총평 - 평가결과 종합

### 1. 서술적 총평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무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도 장수군의 지역색과 문화를 이번 평가 한번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에 앞서 평가단은 설문 조사를 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평가 보조요원들에게 설문과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설문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처음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용역을 진행하며 사실 설문 결과나 현장 평가의 결과에 자못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그런 축제가려니...'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축제 방문객의 축제 평가 점수를 보고 스스로가 자성하며 장수군의 지역색에 대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했다.

군민들 스스로가 이웃한 축제나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타지역의 축제를 경험하고 축제를 상대 평가했다면 결과가 조금은 상이하게 나왔겠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장수군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축제 목적 중 지역민의 화합이나 여가선용, 문화향유 면에서는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홍보 범위나 방법면에서 축제 방문객이 지역민에 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외부 관광객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50%이상)

이러한 결과를 아무리 평가절하 한다고 해도 어쨌든 외부 관광객의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다. 이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앞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고 축제가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홍보활동에 적극성만 담보된다면 주최 측이 원하는 축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였다.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하며 발견한 또 한가지 특징은 장수군의 인구 분포상 노년층의 방문객이 현저히 많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반해 젊은층(30대 미만)의 방문객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그저 노인들의 잔치가 아니라는 점과 장수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역시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젊은층의 축제 관심은 노년층과는 달리 축제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기성세대들에 의해 그저 치러내기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데 반해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젊은층이 축제에 관심을 보여 그들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이며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축제에 동참시키려면 30대가 가장인 가족단위(아빠, 엄마, 자녀) 프로그램

의 개발과 이들이 타겟이 되는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커다란 목적이기도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축제 평가 결과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아무리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향유에 기여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투자만 하고 성과가 없다면 이러한 축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지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자 대부분은 이번 축제에서 3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대부분이 식/음료를 구입하는데 이용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이나 축제 캐릭터 상품 구입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행사에서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의 확충, 그리고 의암 주논개 대축제 캐릭터 상품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결과이다.

또한 장수군민이나 외부관광객 모두가 지적한 연계관광지 개발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대변한 평가 결과이다. 대부분의 축제방문객은 축제 관람을 위해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주말 관람객을 고려해 볼 때 최소 1일간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계관광지 또는 관광코스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는 주기전승의 의례이자 모든 참가자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화합의 장이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도 안되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인간 흥의 표현이며 생생한 문화의 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그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관에 의해 또는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 의존하여 주제도 불분명하고 특색도 없는 이벤트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축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축제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축제 대안 제시

#### (1) 지자체의 관심이 축제 성공을 부르는 지름길

축제가 아무리 민에 의해 주도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축제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운동장 축제의 전형을 답습하던 때야 관이 축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축제가 민에 의해 기획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제가 다 성공하지 않는 것 보면 꼭 축제가 민에 의해 주도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공한 축제들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의 도움이 배경에 있다. 단순히 어느 실과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맡아 그저 단체장에게 상황보고만 하고 단체장의 축제 관람 동선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제 정보를 공유하고 좀더 발전적인 축제 기획을 이루어 낼 때 축제는 성공하는 것이다.

#### (2) 새롭고 책임감 있는 축제 추진조직 구성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이 상근 조직으로 구성되어 축제를 치러내고 있다. 물론 이 인원이 축제를 원활하게 치러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논개 선양의 고유 업무 수행과 함께 축제를 치러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급한 인원의 보강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전문가를 축제에 참여시키는 축제 추진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 추진 조직체가 1년 내내 상근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추진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공무원 조직 중에서 기획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2명, 그리고 외부 문화 전문가 1명으로 약 5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원이 직접 축제 기획을 손질하고 홍보를 병행하며 축제를 진행해 낸다면 의암 주논개 대축제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공적인 전국 축제로의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 (3)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로 홍보 분야이다. 어떤 전략에 의해 어떤 전술로 홍보를 진행했는지의 구체적 계획도 없었고, 홍보물이 주위의 시선을

끝만한 메리트도 없었다. 장수군내 광고탑이나 현수막, 애드벌룬, 포스터가 홍보의 전부였고 종합안내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로는 축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었다. TV 자막광고를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빈도수가 낮아 접촉기회가 너무 적었고 신문광고의 경우 지방지에만 한정되어 그 효과를 측정해 내기가 어려웠다.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홍보범위는 장수군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웃한 전주나 대전 같은 대도시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 사절단이나 타지역 축제 홍보부스 참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시간 투자를 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추진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조직 내에 홍보를 전담하는 인원 배정과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홍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좀더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요한 문제점은 온라인 홍보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온라인 상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축제 관련 사이트가 전부이다. 인터넷은 주로 젊은층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현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하게 이용하는 매체이므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홍보매체이다. 또한 비용이 저렴하고 축제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홍보매체이므로 내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 것이다.

#### **(4)업무 총괄을 담당 할 대행업체 선정**

지역의 축제를 외부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몇몇 행사는 업체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으며 지역색을 모르는 업체에 일을 의뢰하여 낭패를 본 축제도 있다. 또한 업체 자체가 여기 저기 일을 하다보니 축제마다의 차별성을 잃고 축제가 비슷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총괄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연출 구심점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식 행사운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를 진행해오는 동안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떨어지고 거의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히 군민들의 기대감 또한 상실되어 축제를 주최하는 선양회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장수군청 역시 심각한 매너리즘(예를 들면 아무 사고 없이 그저 무사히, 작년만큼만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우수한 업체를 통한 아이템 도출이나 지역축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기대하기 위해 다음 축제에는 한번 정도는 대행사를 선정해 볼직도 하다.

## (5)관람 편의 및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내 환경개선

특설무대로 사용하는 야외 음악당은 메인 무대로서의 손색은 없으나 대규모 관객이 운집할 경우 스탠드가 너무 좁고 무대가 낮아서 많은 사람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여 평가단도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무대를 높일 수 없기에 발상의 전환으로 스탠드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스탠드 전체를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중앙 부분은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 좌/우에 간이 스탠드를 보강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관람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잡상인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들이 없으면 사실 또 축제가 너무 평면적으로 이루어져 재미가 없다. 전주 풍남제처럼 난장이 주제가 된 축제도 있으니 그것을 너무 몰아붙이며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경우처럼 주객이 전도되어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무대 맞은편으로 전통체험관이 조성되고 그 옆으로 사과 특별기획전이나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무대 주위는 잡상인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읍/면의 먹거리 부스는 주차장에 조성하도록 하고 논개 사당과 연결되는 산책로는 논개 체험이나 논개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당과의 연계성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면 한다. 또한 이 공간에는 간이 파빌리온이나 원두막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V. 별첨

-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지

## 의암 주논개 대축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탄신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귀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또한 귀하께서 응답 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직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사단법인 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

※ 해당되는 곳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 현재 장수군의 거리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많이 느낀다.    ② 다소 느낀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못 느낀다.    ⑤ 전혀 못 느낀다.
  
2. '축제'에 대한 정보(개최여부, 행사장, 공연일정 등)는 주로 무엇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① 신문    ② 잡지    ③ TV    ④ 라디오  
⑤ 각종 팸플렛 및 안내책자    ⑥ 현수막 및 포스터  
⑦ 주위사람    ⑧ 인터넷    ⑨ 여행사 및 관광안내소  
⑩ 기타(구체적으로 )
  
3. '축제'에 대한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되었다.    ② 잘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되었다    ⑤ 매우 잘 안되었다.
  
4. 축제 개막 전에 축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잘 알고 있었다.    ② 조금 알고 있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전혀 몰랐다.
  
5. 축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②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③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④ 다른 사람의 권유로  
⑤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 우연히 참가  
⑦ 기타(구체적으로 )
  
6. 행사장까지 오시는데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    ② 택시    ③ 자가용    ④ 도보  
⑤ 기타(구체적으로 )
  
7. 장수 이외의 지역에서 오셨다면 며칠 간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① 무박 1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기타(구체적으로 )



8. 축제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의 질문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접 근 성	행사장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행사장간의 이동이 편리하다.					
	도로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있다.					
	주변관광지와 잘 연계되어 있다.					
안내 요원 및 시설	안내요원이 친절하다.					
	안내요원이 축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안내요원의 수가 충분하다.					
	안내 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다.					
편의 시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					
	화장실이 잘 정리되어있다.					
행사 내용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내용이 충실하다.					
	행사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일반인이 참여할 행사가 많다.					
기 타	음식료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토산품 등의 가격이 적당하다.					
	먹거리가 다양하다.					
	숙박시설이 청결하다.					
	숙박시설 예약이 편리하다.					

※ 다음은 축제 기간동안 개최되는 행사들입니다. 아래를 참고 하셔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영화의 밤	2.전야 길 퍼레이드	3.불꽃놀이
4.전야제	5.의암 주논개 제례	6.개 막 식
7.논개 총절무	8.논개골 실버페스티벌	9.농악놀이
10.주논개 선발대회	11.군민화합 한마당	12.폐막 종야제(달집태우기)
13.전통체험 여섯마당	14.사과 특별기획전	15.의암 백일장
16.한시 백일장	17.경노잔치(의암사)	18.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9.남녀 궁도대회	20.군수배 테니스 대회	21.논개배 탁구대회
22.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23.풍물 야시장	24.사진/시화/서예 전시회
25.농특산물 전시판매		

9. 축제 행사 중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_\_\_\_\_ )

10. 축제 행사 중 가장 재미없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_\_\_\_\_ )

11. 축제 행사 중 가장 유익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_\_\_\_\_ )

12. 축제 행사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행사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참여하지 않음
공연행사						
문화행사						
체험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						
개·폐막식						

13. 귀하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_\_\_\_\_점(100점 만점)
14. 귀하가 축제 기간동안 사용한 경비는 얼마입니까?(교통비, 숙박비 제외)  
 ①1만원 미만    ②1~3만원    ③4~6만원    ④7~9만원  
 ⑤10~12만원    ⑥13~15만원    ⑦16~19만원    ⑧20만원 이상
15. 다음에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보러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매우 있다.    ②어느 정도 있다.    ③잘 모르겠다.    ④별로 없다  
 ⑤전혀 없다.
16.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교통문제    ②숙박문제    ③홍보문제    ④편의시설 문제  
 ⑤안내요원 및 안내시설    ⑥프로그램의 질    ⑦축제 운영
17.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추가(보완) 되었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①지역 특산물 판매    ②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③축제와 연계된 관광 코스 개발  
 ④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8. 귀하는 지금까지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몇 번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①처음 참가    ②1~2회 참가    ③3~4회 참가    ④5회 이상
19. 축제 기간동안 각종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골라서 참여한다.  
 ③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④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0.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장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					
애향심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전통 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도움을 준다.					
장수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준다.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준다.					

※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귀하의 성별은?

- ①남자    ②여자

22.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미만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

23. 귀하의 직업은?

- ①농·어업 및 축산업    ②사무·행정직(회사원, 은행원, 사회단체 등)  
 ③일반공무원    ④교사    ⑤일반전문직(의·약사, 판·검사, 교수, 연구원 등)  
 ⑥생산직 근로자    ⑦주부    ⑧자영업  
 ⑨서비스직(유통, 알선, 중개, 운전기사 등)    ⑩학생    ⑪무직  
 ⑫기타(구체적으로 )

24. 귀하의 거주지는?

- ①장수군내    ②장수군 외 전북지역    ③전북 외 지역( \_\_\_\_\_도 \_\_\_\_\_시)

25.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무학    ②초등학교 재/졸    ③중학교 재/졸    ④고등학교 재/졸  
 ⑤대학교 재/졸    ⑥대학원 재학이상

※ 지금까지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신 429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3. 10

우석대학교 사회조사 연구팀

책임 연구원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 낙



사)의암 주논개 정신 선양회장 귀하





